

(773)

# 조선

주제 109  
(2020)

# 12





# 인민사수전으로 이어온 2020년

## 차례

인민사수전으로 이어온 2020년 . . . . . 1

만민의 다함없는 흠모와 지성을 담아 . . . . . 14

혁신의 기상 내려치는 대안 . . . . . 18

세멘트증산으로 들끓는다 . . . . . 20

생산과 가공을 밀착시켜 . . . . . 22

고산땅에 일떠선 과일가공기지 . . . . . 24

자력으로 흥하는 고장 . . . . . 26

단풍으로 물든 평양 . . . . . 30

고여창작이 아쳐온 60여년 . . . . . 34

개성고려인삼의 원한지를 찾아서 . . . . . 36

이름난  
    감서약수 . . . . . 39

국전과 함께 . . . . . 40

남포시 룡강궁에서 발굴된  
    고구려벽화무덤 . . . . . 4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를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9(2020)년 4월

주체109(2020)년이 저물고있다.

년초부터 세계를 휩쓰는 보건위기가 급속히 악화되는 속에 류레없는 자연재해까지 겹쳐든 올해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에 있어서 참으로 다사다난한 해였다.

그러나 그와 함께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를 자기 활동의 근본원칙으로 하고있는 당과 국가의 립장이 더욱 뚜렷이 천명된 해였다.

악성전염병이 몰아올 파국적후과에 대하여 아직 어느 나라에서도 예상하지 못하였던 1월 24일 조선에서는 세계보건기구가 국제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한 1월 30일보다 근 1주일 앞서 국가비상방역체계가

선포되었다.

국가는 선제적으로 국경을 차단하고 위생방역체계를 국가비상방역체제로 전환하였으며 초특급방역조치를 가동하여 안정적인 방역형세를 유지해나갔다.

년초부터 소집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 정무국회의를 비롯한 많은 회의들에서는 악성전염병의 류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사업이 가장 중요한 안전으로 심중히 토의되었으며 해당한 결정들이 채택되고 이를 철저히 실행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들이 시행되었다.

그에 따라 국가적인 방역사업체계가 더욱 정연하게 구축되었으며

방역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인민보건기관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여졌다.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비상방역사업이 장기화될수록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방심과 해이, 완만성을 배격하고 사람들의 위기의식을 높여주기 위한 위생선전사업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하늘처럼 떠받드는 인민의 안녕을 철저히 수호하기 위한 강도높은 비상방역사업을 전개해나가던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앞에 이번에는 전국의 여러 지역을 휩쓴 파괴적인 자연재해가 가로막아나섰다.

8월과 9월 나라의 동서부에서 재해성폭우와 태풍에 의한 피해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운영집행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9(2020)년 7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8차 정치국회의를 사회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9(2020)년 9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0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사회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9(2020)년 11월

런이 발생 할 때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여러 회의들을 즉각 소집하고 모든 힘을 집중하여 큰물피해를 빨리 가시고 수재민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토의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황해남도와 황해북도,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피해지역들을 직접 찾아가시어 현지상황을 료해하시고 복구건설을 위한 강력한 대책들을 취하도록 하시였다.

많은 수재민들이 집과 가산을 잃고 림시거처지에서 이루 말할수 없는 생활상 고통을 겪고있는 현실하에서 다른 그 누가 아닌 당이 그들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인민들이 겪는 고생을 함께 하고 덜어주기 위하여 그들결으로 더 다가가야 한다는것이 그이의 의지였다.

하여 수재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가셔주기 위한 복구건설이 진행되게 될 지역들이 당과 국가가 전력을 투하해야 할 최전선으로 규정되었으며 추위가 오기 전에 모든 수재민들에게 새 보금자리를 안겨주는것이 복구건설의 당면한 목표로 정해졌다.

조국방선을 지켜섰던 인민군부대들과 수도의 핵심당원들로 조직된 건설집단을 비롯하여 전국의 강력한 복구건설력량들이 피해지역으로 급파되었고

## ☆ 주체109(2020)년 2월 27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파되고있는 비루스전염병을 막기 위한 국가적인 초특급 방역조치들을 더욱 철저히 취하고 엄격히 실시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과 전염병의 류입과 전파를 과학적이면서도 선제적이고 봉쇄적으로 막기 위한 대책문제들이 토의

## ☆ 주체109(2020)년 4월 1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공동결정서 《세계적인 대류행전염병에 대처하여 우리 인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대책을 더욱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를 채택

## ☆ 주체109(2020)년 7월 2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4차 정치국 확대회의

악성전염병을 막기 위한 6개월간의 사업정형을 총화하고 국가비상방역사업을 강화하여 지금의 방역형세를 더욱 공고화하기 위한 문제를 토의

## ☆ 주체109(2020)년 7월 2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이행할데 대한 결정 채택

## ☆ 주체109(2020)년 8월 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정무국회의

국가최대비상체제의 요구에 따라 완전봉쇄된 개성시의 방역형편과 실패 보고서를 료해하고 봉쇄지역 인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식량과 생활보장금을 당중앙이 특별지원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결정

## ☆ 주체109(2020)년 8월 13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6차 정치국회의

세계적인 보건위기상황의 요구에 맞게 국가비상방역체계를 더욱 엄격하게 유지하고 정연한 방역사업지휘체계를 완비할데 대한 문제, 개성시를 비롯한 전연지역 봉쇄를 해제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결정

## ☆ 주체109(2020)년 8월 2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7차 정치국 확대회의

세계적인 보건위기상황에 대비한 국가비상방역태세를 점검하고 방역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기 위한 해당 문제들이 심도있게 토의

## ☆ 주체109(2020)년 9월 2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8차 정치국회의

악성비루스의 전파위험을 막기 위한 사업에서 나타나고있는 일련의 부족점들을 지적하고 국가적인 비상방역사업을 보다 강도높이 시행할데 대한 해당 문제들이 심도있게 연구토의

## ☆ 주체109(2020)년 11월 1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0차 정치국 확대회의

세계적인 보건위기가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국가비상방역체계를 더욱 보강할데 대한 문제가 심도있게 토의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일대의 많은 살림집들과 농경지가 큰물로 침수되었다는 상황을 보고받으시고 피해현장에 나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9(2020)년 8월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의 피해복구와 관련한 가르치심을 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9(2020)년 8월



많은 식량과 의약품을 받아안은 대청리인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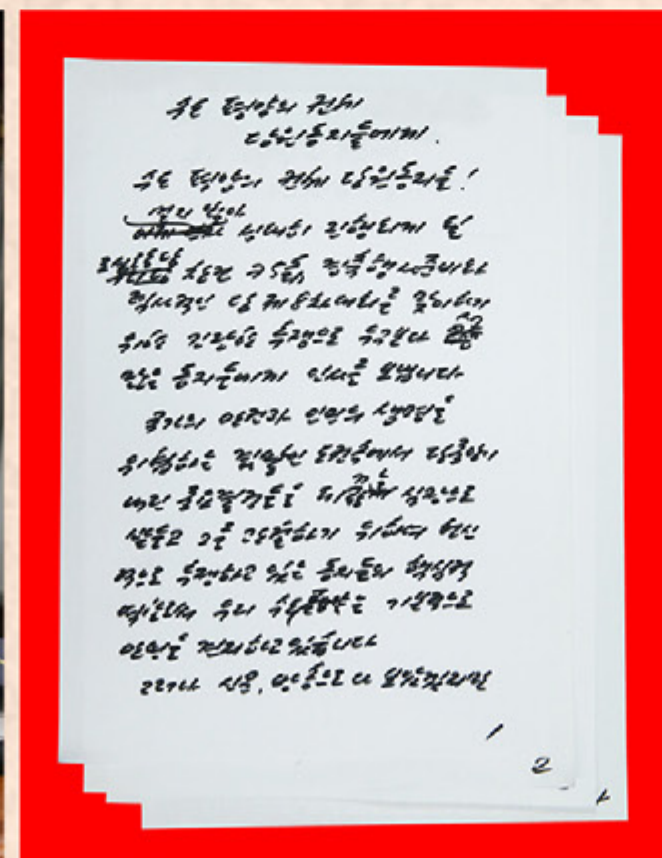




태풍9호에 의한 자연재해복구전투조직을 위한 당중앙위원회 정무국 확대회의를 현지에서 소집하시고 피해지역을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 109(2020)년 9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수도 평양의 전체 당원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시였다.  
주체 109(2020)년 9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공개서한을 받아안고 피해복구전구로 진출하는 최정예수도당원사단 전투원들





최정예수도당원사단 전투원들과 인민군장병들은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행복의 보금자리를 안겨줄 일념밑에 치열한 철야전, 과감한 전격전을 벌리며 살림집건설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 인민사수전으로 이어온 2020년



최정예수도당원사단 전투원들이 건설한 살림집들을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9(2020)년 10월

건설물자들이 룡로와 해상을 통해 우선적으로 긴급수송되었다.

전국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피해지역에 보내줄 복구건설용자재와 수재민들의 생활용품을 증산하기 위하여 낮에 밤을 이어 생산을 다그쳤으며 온 나라 인민들이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성의를 다하였다.

조선로동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한결같이 떨쳐나선 인민군군인들과 전체 건설자들, 지원자들의 줄기찬 노력에 의하여 마침내 개성시와 황해북도, 황해남도과 강원도, 함경남북도를 비롯한 피해지역들에서 전화위복의 훌륭한 성과들이 차례차례 이룩되고 이 지역 인민들이 웃음속에 눈물속에 춤을 추며 새집들이를 하는 광경들이 펼쳐졌다.

온 한해동안 류레없는 고난과 시련을 헤쳐오는 과정에 전체 조선

인민은 바로 자기자신들에 대한 헌신적복무를 존재방식으로 하고있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의 인민적인 정치, 인민적인 시책에 대하여 다시 한번 체감하였으며 이 땅, 이 체도가 바로 자신들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까지 훌륭히 담보하는 보금자리라는것을 다시금 새삼스레 절감하게 되었다.

정녕 올해는 엄혹한 재해와 재난들을 극복하기 위한 긴장하고 힘겨운 투쟁속에서 당과 인민, 국가와 인민간의 똘을래야 똘을수 없는 혈연의 정을 더욱 두터이한 해로 공화국의 력사에 자랑스러운 한해지를 남기게 될것이다.

글 리진범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 함경남도 신포시, 흥원군을 비롯한 큰물과 래풍피해지역들에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일떠섰다.



새집들이를 하는 피해지역 인민들



# 인민사수전으로 이어온 2020년







## 만민의 다함없는 흠모와 지성을 담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끝없이 흠모하고  
칭송하는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마음은  
날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강렬해지고있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어 위대한 혁명가로 성장하신 그이께서는  
위인이 지닐수 있는 품격과 자질을 최상의 높이  
에서 완벽하게 체현하시고 조선을 백승의 한길로  
줄기차게 이끄시였다.

그이께서는 1990년대의 세계적인 정치적동란  
속에서 탁월한 선군정치를 펼치시어 전체 조선  
인민의 삶의 보루이고 기둥인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수호하시고 공화국을 그 어떤 침략세력도  
감히 범접할수 없는 강위력한 나라로 강화하시  
였다.

세계 자주화위업실현을 위한 정력적인 사상  
리론활동과 대외활동으로 자주화된 새 세계건설  
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강권과 전횡이 란무  
하던 복잡다단한 국제정세하에서도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신 위대한  
장군님입니다.

정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한평생  
쌓으신 업적은 그이께서 지니신 탁월한 사상  
리론적예지와 비범한 령도력, 고매한 품모와  
더불어 전체 조선인민뿐아니라 세계 수많은  
나라 정계, 사회계인사들과 인민들의 다함없는  
칭송과 흠모를 불러일으켰다.

하기에 세계 여러 나라의 국가수반들과 정계,  
사회계인사들은 그이께 지성어린 선물들을  
드리면서 한결같이 위대한 장군님은 인류자주  
위업의 앞길을 밝히는 영원한 태양이시라고  
격찬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 세계 수많은 나라의 당 및  
국가수반들과 각계 인사들이 드린 선물들의  
수는 4만여점에 달한다.

사진 공유일  
글 김선경



**옥돌꽃병**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  
주제 75(1986)년 7월



**장검**  
바샤르 알 아사드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주제 95(2006)년 12월



**동공예 《고대력서》**  
남바린 엔흐바야르 몽골수상  
주제 92(2003)년 11월



**은공예 《가네샤신》**  
인디아 돌핀국제회사 사장  
주제 91(2002)년 1월



**금공예 《돛배》**  
장카를로 엘리아 발로리 이탈리아  
국제관계연구소 총서기  
주제 81(1992)년 8월



**수정유리과일다반**  
체스꼬래권도련맹 위원장  
주제 100(2011)년 9월



**자기꽃병**  
데. 페. 아조브 전 소련  
국방상인 쏘련원수  
주제 89(2000)년 7월





자수정  
삼 누조마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당 위원장 겸  
나미비아공화국 대통령  
주체89(2000)년 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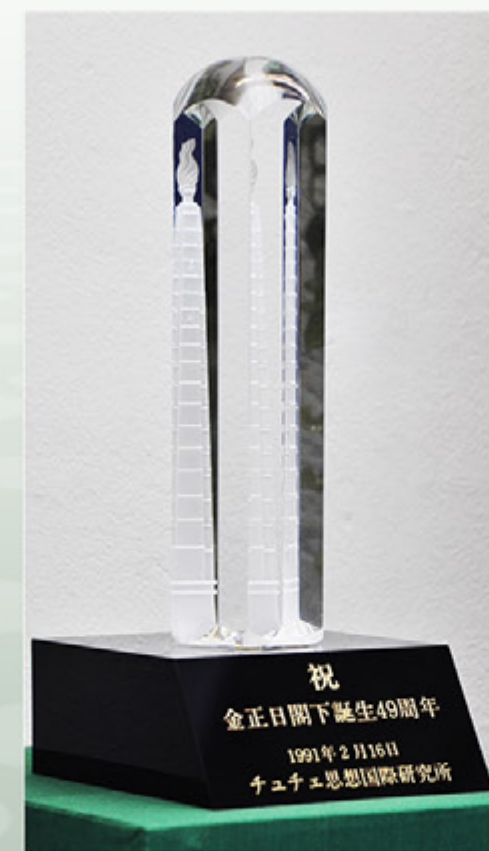
동조각 《야생말을 길들이는 사람》  
미국전략 및 국제문제연구소  
주체81(1992)년 6월



보석공예 《앵무새》  
브라질민주운동당 위원장  
주체85(1996)년 7월



하마이발조각 《기네인민들의 생활》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 리사장  
주체81(1992)년 1월



수정공예 《주체사상탑》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주체80(1991)년 2월



은조각 《어머니》  
유엔아동기금  
주체86(1997)년 8월



수정공예 《종》  
세계직업련맹 총서기  
주체83(1994)년 4월





# 혁신의 기상 나래치는 대안

굴지의 발전설비제작기지인 대안중기예련합기업소에서 증산의 동음이 힘차게 울리고 있다.

소재부분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합리적인 조형방법을 적극 탐구도입하여 주강품의 질을 계속 높이고있다.

제관부분에서도 자동용접공정을 비롯한 모든 공정의 설비들을 만가동하며 더 많은 제관품들을 생산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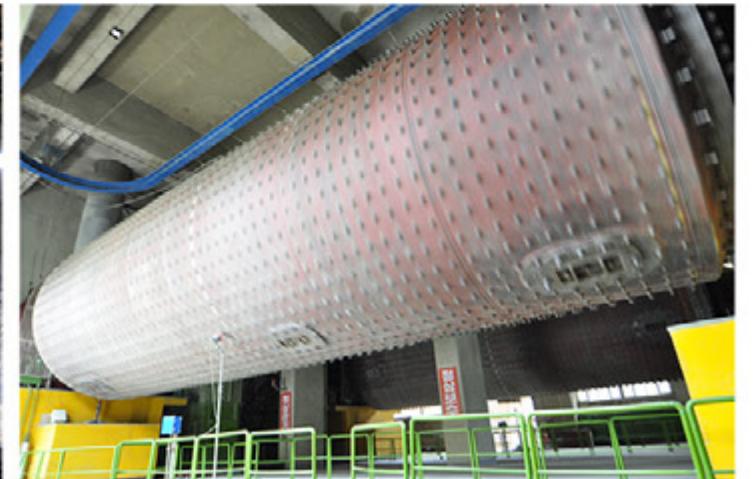
발전설비1가공직장과 대형기계직장을 비롯한 가공부문에서는 CNC화된 기계설비들의 장치와 조종프로그램을 갱신하여 그 성능을 개선하는 것과 함께 새로 창안한 지구, 장비들을 리용하여 가공시간을 줄이면서도 그 질을 설계의 요구대로 보장하고있다.

대상설비조립직장의 로동자, 기술자들도 집체적지혜를 발동하여 각지의 발전소건설장들에 보내줄 각종 발전설비들의 조립을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있다.

사진 리명국, 리철진  
글 박병훈







## 세멘트 증산으로 들끓는다

나라의 위력한 건재생산기지인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생산적 양양이 일어나고있다.

전국적으로 끊임없이 증대되는 세멘트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하여 련합기업소에서는 생산능력을 높이는것과 함께 생산활성화를

위한 방도들을 찾아 자체의 힘과 기술로 풀어나가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모든 공정간 련계를 치차처럼 맞물리는 것과 함께 생산과정에 제기될수 있는 문제들을 예견성있게 대책해 나가고있다.



중앙조종실에서는 원료투입으로부터 출하에 이르는 모든 생산공정들에 대한 조종을 더욱 짜고들어 원료와 전력소비 등을 줄이면서도 제품들의 량과 질을 다같이 높이도록 하고있다.

소성직장의 노동자들과 기술자들은 소성능력이 높아진데 맞게 설비관리를 보다 강화하면서 질 좋은 크링카를 생산하고있다.

조합원료직장을 비롯한 선행공정단위들에서는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지켜 설비들을 만가동시키는것과 함께 제품종류에 따르는 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키고있다.

상원석회석광산에서는 채광과 운반에 힘을 넣으면서 원료의 품위를 기술지표대로 보장하고있으며 삼청광산과 화천탄광에서도 새로운 기술공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여 생산실적을 높이고있다.

자력갱생의 정신을 비약의 원동력으로 틀어쥐고 날마다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련합기업소 전체 종업원들의 한결같은 노력에 의하여 이곳의 제품출하장에서는 세멘트를 가득 실은 렬차들이 련이어 출발하고있다.

사진 리더정, 홍광남  
글 김필







## 생산과 가공을 밀착시켜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감자산지의 하나인  
량강도 삼지연시에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이  
자리잡고있다.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통합생산체제가  
훌륭히 구축되고 로력절약형, 에너지절약형  
으로 건설된 공장에서는 무진장한 원료원천에  
로대하여 감자가공업에서 추세로 되고있는  
감자가루생산을 진행하는것과 함께 여러가지  
감자가공품들도 생산하고있다.

원료투입으로부터 제품포장에 이르는 감자  
가루직장의 모든 공정들은 고도로 자동화,  
흐름선화되어있으며 생산현장의 무균화, 무진  
화도 완벽하다.

주체106(2017)년에 조업한 공장은 초기에  
감자가루생산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가공품은

많지 않았었다.

공장에서는 새로운 생산공정들을 꾸리는것과  
함께 모든 종업원들이 과학기술보급실운영 등을  
통하여 지식형의 근로자로 준비하는 과정에  
제품개발에도 적극 참가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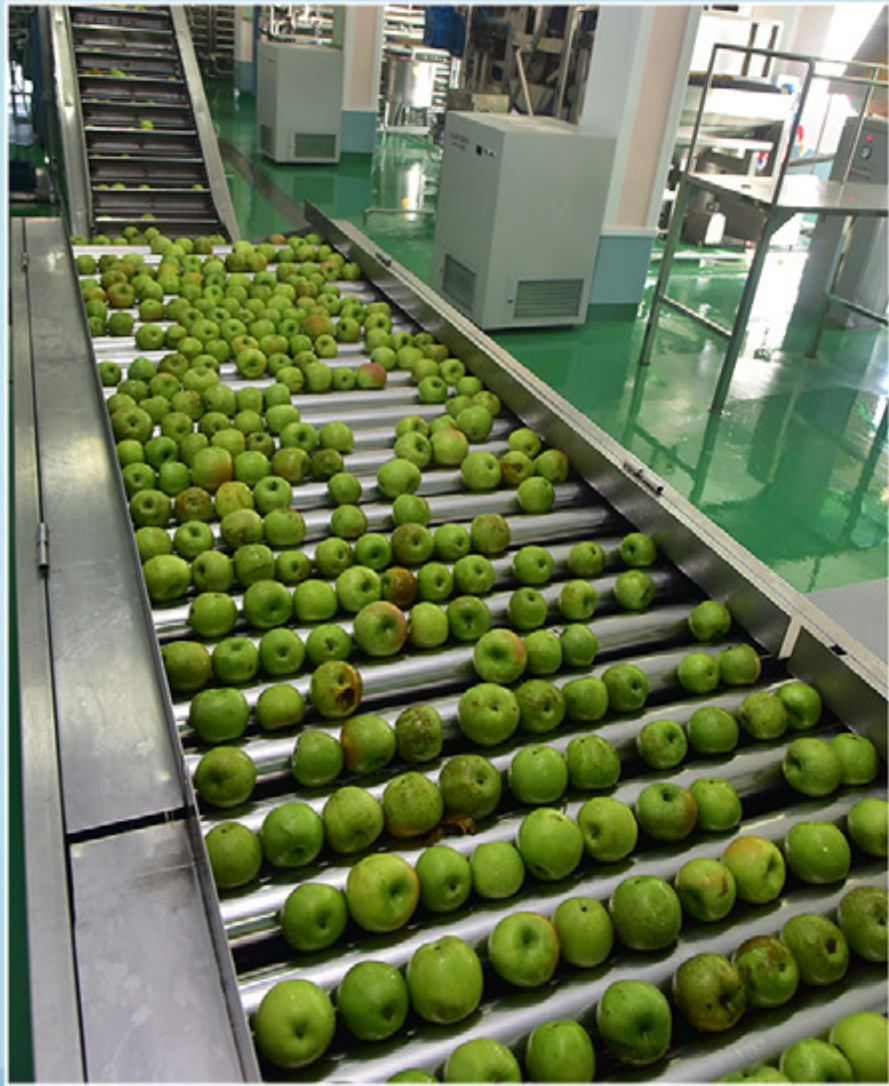
하여 현대적인 감자가공품생산설비들이  
추가적으로 설치되어 가동을 시작하였으며  
지난해부터는 감자가루와 함께 감자영양쌀,  
감자국수, 감자우동, 감자파베기 그리고 파자와  
편튀기를 비롯한 다양한 제품들이 대량적으로  
생산되고있다.

공장의 모든 제품들은 그 질이 하나같이 높  
으며 벌써 조선의 제일명산인 백두산이 있는  
삼지연시의 새 특산물로 전국에 소문났다.

사진 윤혁 글 리진범







## 고산땅에 밀려선 과일가공기지

강원도의 고산과수종합농장에 과일가공공장이 새로 일떠서 지난 9월말에 조업하였다.

경영과 생산활동의 현대화, 집약화가 훌륭히 실현된 고산과일가공공장이 건설됨으로써 이곳의 백리청춘과원에서 해마다 거두어들이는 과일들이 여러가지 가공품들로 전환되어 인민들에게 가닿게 되었다.

공장에는 현대적인 생산공정들이 갖추어지는것과 함께 기술자, 기능공력량도 그쯘하게 꾸려졌다.

지금 공장의 노동자들은 선진기술을 부단히 습득하고 기술기능수준을 높여 설비마다 만가동을 보장하고있다.

공장의 기술자들도 모든 제품의 질을 완벽하게 보장하고 새로운

제품들을 개발하여 경영활동을 활성화하는것을 목표로 내세우고있다.

벌써 《고산》상표를 단 이곳의 과일술과 여러 단물류들은 강원도는 물론 각지의 인민들속에서 호평을 받기 시작하였다.

국내의 과일가공품생산에서 가장 유명하던 대동강과일종합가공공장에 이제는 유력한 경쟁자가 생긴셈이다.

사진 안철룡  
글 정남무







# 자력으로 흥하는 고장

평안북도의 내륙지역에 강하천이 많다고 해서 그 이름이 유래된 태천군이 위치하고있다.

군면적의 70%가 산으로 되어있으며 큰 규모의 공장, 기업소도 별로 없다.

한마디로 중간지대 군들의 축도라고 할수 있다.

그러한 태천군에서 최근년간 끊임없는 변혁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유족하고 문명하게 사는 무릉도원은 바란다고 저절로 오는것도, 누가







군에는 버섯생산기지, 축산기지, 양어기지, 나무모생산기지가 꾸려져있다.

가져다주는것도 아니라는것을 자체의 노력으로 부흥을 이룩해 가는 고장들을 보면서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는 태천사람들이다.

자기에게 있는 밀천과 가능성을 하나하나 찾고 적극 리용하여 자기 고장을 남들이 부러워하는 군으로 기어이 전변시킬 마음 안고 누구나 분발하였다.

거듭되는 애로와 난관을 박차고 모두가 이악하게 떨쳐나 대령강의

흐름을 막고 태천청년4호발전소를 비롯한 동력기지를 일떠세웠다.

그리고 이에 토대하여 이미 있던 지방산업공장들을 개건하고 활성화 하는 한편 현대적인 축산기지과 버섯생산기지, 양어장 등을 새로 일떠 세우는 사업도 적극 내밀었다.

자기 힘을 믿고 떨쳐나서니 군의 재부는 한해한해 늘어만 갔다.

식료공장과 철제일용품공장을 비롯한 지방산업공장들이 군안의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는 속에 농업생산도 해마다 장성하였다.

체육관과 은덕원, 병원, 문화회관 등 많은 건물이 훌륭히 일떠서거나 새롭게 개건되어 읍지구의 면모가 완전히 일신되었다.

오늘 태천군은 국토관리와 산림복구에서도 도적으로 앞선 자리를 차지하고있으며 보건, 교육사업에서도 큰 전진을 이룩하였다.

옷칠공예품과 초물제품을 비롯한 태천군의 특산물들은 도는 물론

전국에 널리 알려졌으며 나날이 그 수요가 늘어나고있다.

그와 함께 자기 힘이 제일이라는 진리를 간직하고 고향땅을 꾸려가는 태천군인민들의 긍지와 자부심도 계속 높아가고있다.

사진 홍래웅  
글 정기상



자기 지방의 원료를 리용하여 초물제품, 옷칠공예품들을 비롯한 여러가지 특산물들을 생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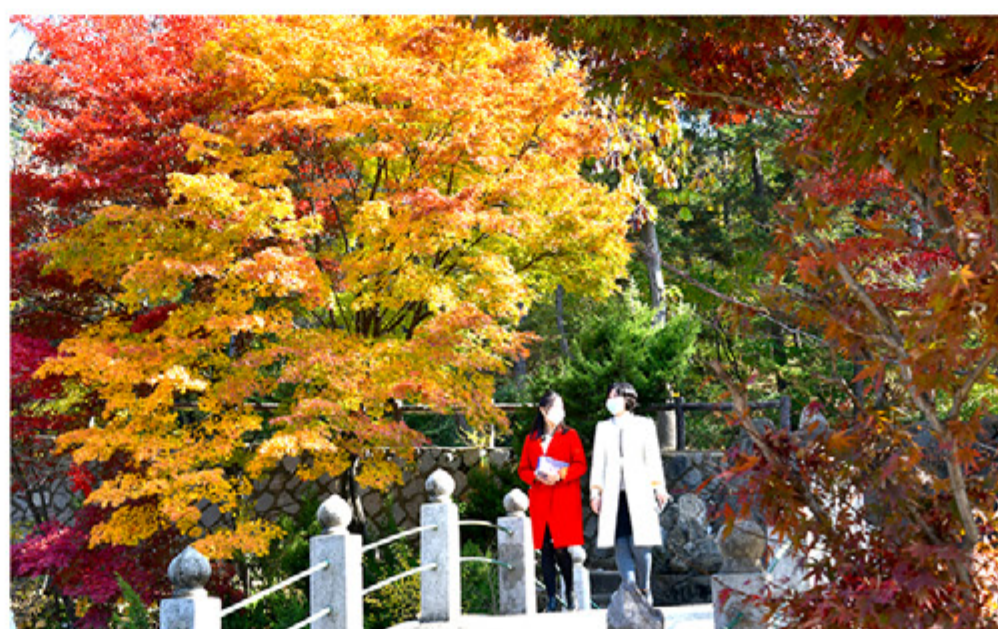


## 단풍으로 물든 평양

사진 신충일, 손희연, 홍광남









# 교예창작에 바쳐온 60여년



김일성상계관인이며 인민예술가인 연출가 박소운



국립교예단 연출가인 인민예술가 박소운의 고향은 오늘의 라선시이다. 주체30(1941)년에 태어난 그는 제국주의자들이 도발한 조선전쟁(1950. 6. 25 -1953. 7. 27.)시기 교아가 되어 학원에서 자랐다. 체육뿐아니라 문학과 예술분야에도 천성적인 재능이 있었던 박소운은 전후인 주체43(1954)년에 평양에 설립된 교예학원으로 선발되었으며 4년후 졸업하여 수년동안 교예배우생활을 하였다. 이때 그는 체력교예뿐아니라 요술, 동물교예작품들에도 자주 출연하였다. 이것은 그가 1960년대 중엽 전문교육을 받고나서부터 연출가로 활약할수 있게 한

밑천이 되었다. 1970년대부터 조선의 공중교예가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게 된것은 그의 노력과 많이 결부되어있다. 그에 의하여 여러개의 그네와 비행틀 등으로 구성된 공중무대가 새로 출현하였다. 공중에서의 3회전, 4회전돌기와 연속비행형식이 그에 의하여 구상되고 실현되었다. 대표작으로 《3인그네》(1974년), 《공중그네비행》(1978년) 그리고 《날아다니는 처녀들》(1995년)을 들수 있다.

그의 작품들은 국제교예축전들에서 무려 30여개의 금상을 받았다. 그밖에도 체력교예 《3인조형》(1972년), 《땅재주》(1974년), 요술 《악사없는 음악회》(1977년), 《알냥는 종이닭》(1980년), 회극교예 《리발소》(1966년) 그리고 동물교예 《말타기》(1973년), 《달리는 말우에서 재주》(1984년) 등 조선의 교예발전사를 장식하는 작품들은 모두 그가 창작한것이다. 현재까지 110여편에 달하는 교예작품을 창작한 그는 세계적으로 미지의 문제로 되어있던 교예리론의 개척자이기도 하다.

그가 주체73(1984)년에 집필하여 발표한 《교예예술리론》은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한 독본으로 되고있다. 그는 교예의 예술화를 적극 주장한다. 여러 국제교예축전의 심사성원으로도 활동하고있는 그는 오늘도 새 작품창작에 정열을 바쳐가고있다. 머지않아 교예무대에는 현재 박소운이 구상하고있는 새로운 형식의 작품이 오르게 된다.

사진 리진혁 글 김필



국제교예축전들에서 심사를 하였다.



교예작품창작과 훈련을 지도하고있다.





# 개성고려인삼의 원산지를 찾아서



예로부터 개성지방에서 인삼이 나왔다는 전설이 깃들어있는 인삼바위

무릇 사람들은 인삼이라고 하면 개성의 인삼을 제일로 꼽는다.  
그것은 조선력사에서 첫 통일국가인 고려(918년-1392년)의 수도였던 개성에서 나는 인삼의 약효능이 다른 지방의 제품들과 비교할수 없을만큼 특출하기때문이다.  
하여 당시부터 나라와 지방의 이름이 품명과 결합되어 세계적으로도 《고려인삼》, 《개성고려인삼》으로 널리 소문났다.  
조선의 중서부지대에 위치한 이 지방은 수천년의 인삼재배력사를 가지고있다.  
그래서 인삼바위 등 인삼과 관련한 다양한 문화유적들이 지금까지 전해져온다.



자기 집울안에서 수확한 인삼을 보며  
(개성시 북안동 4인민반 오춘택로인)



오늘 개성에는 인삼연구기관과 인삼재배를 전문으로 하는 농장들과 그리고 개성고려인삼가공공장 등이 있다.  
이곳들에서는 전통적인 방법들을 보존하고 계승하는것과 함께 새로운 인삼재배 및 가공기술도 부단히 탐구하고있다.  
그리고 개성고려인삼을 리용하여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수요가 높은 갖가지 약품들과 건강식품, 화장품 등을 생산하고있다.  
개성고려인삼과 많이 결부된 이곳의 지방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즐겨 찾고있다.

사진 박창복  
글 김선경



개성고려인삼가공공장에서







## 이름난 강서약수

조선에서 이름난 약수라고 하면 조선사람들 대다수가 강서약수를 제격 짚는다.

언제 발견되었는지는 알수 없으나 수백년전부터 알려진 이 약수가 솟는 남포시 강서구역 약수리에 약수공장이 있다.

40여년전에 설립된 공장에서는 이 약수에 대한 수요가 끊임없이 늘어나는것으로 하여 지금까지 수차례의 개건사업이 있었다.

지금 이곳에는 유리병약수생산공정과 통약수생산공정 그리고 수지병 약수생산공정이 갖추어져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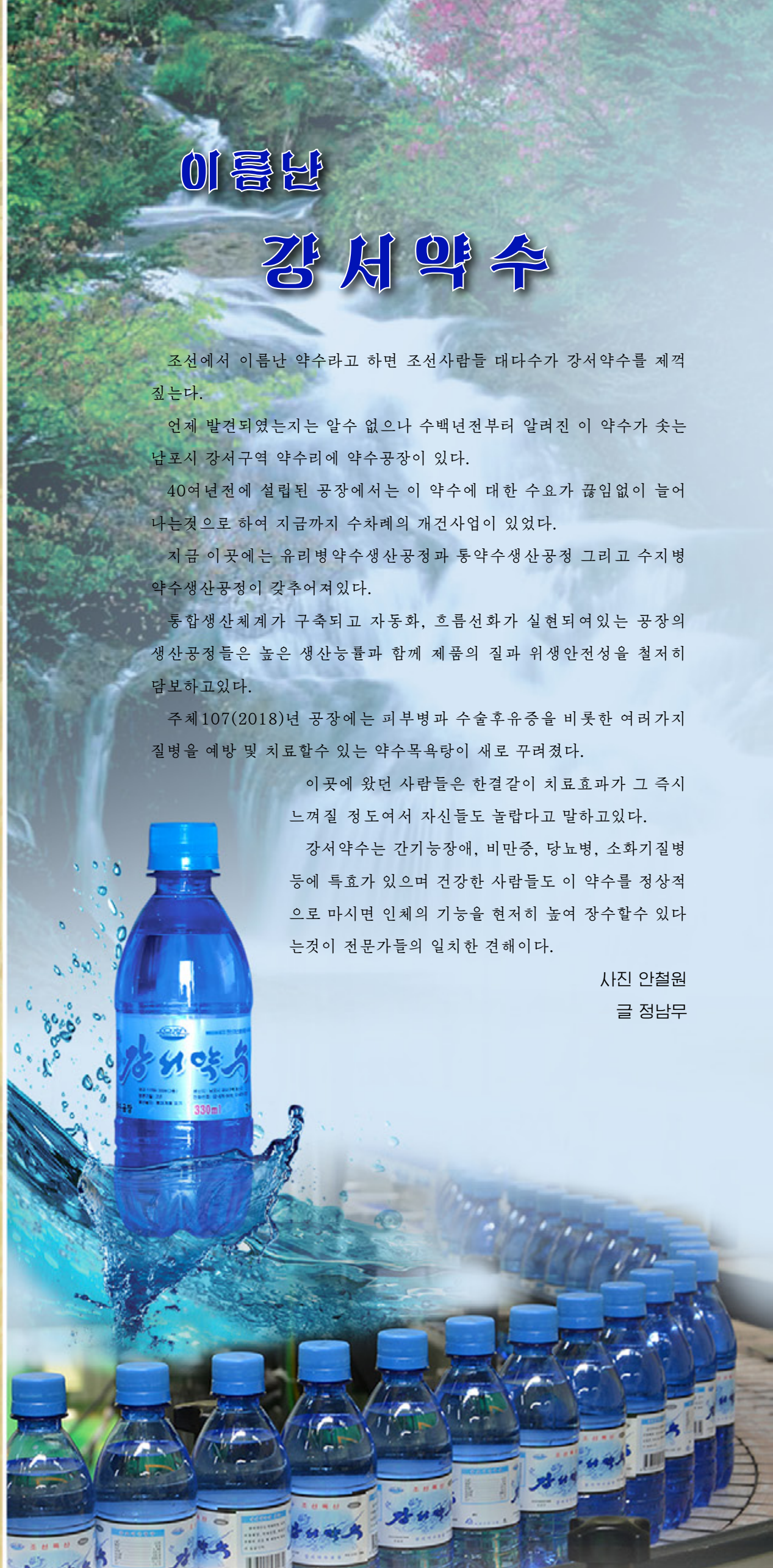
통합생산체계가 구축되고 자동화, 흐름선화가 실현되어있는 공장의 생산공정들은 높은 생산능률과 함께 제품의 질과 위생안전성을 철저히 담보하고있다.

주체107(2018)년 공장에는 피부병과 수술후유증을 비롯한 여러가지 질병을 예방 및 치료할수 있는 약수목욕탕이 새로 꾸려졌다.

이곳에 왔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치료효과가 그 즉시 느껴질 정도여서 자신들도 놀랐다고 말하고있다.

강서약수는 간기능장애, 비만증, 당뇨병, 소화기질병 등에 특효가 있으며 건강한 사람들도 이 약수를 정상적으로 마시면 인체의 기능을 현저히 높여 장수할수 있다는것이 전문가들의 일치한 견해이다.

사진 안철원  
글 정남무







농업연구원 축산학연구소 소장 박사 옥진영

올해 46살인 농업연구원 축산학연구소 소장 옥진영에게는 1개의 박사증과 2개의 석사증이 있다. 흥미있는것은 그것들이 각각 다른 분야의것이라는것이다.

함경남도 함흥시가 고향인 옥진영은 어릴적에 사무원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이사를 많이 다녔다.

보다 많은 변화를 체험하는 과정에 부닥친 모든것이 그의 호기심을 자극하였다. 그리고 자기만의 목표를 세우고 아글타글 노력하는 습관도 키우게 되었다.

대학시절에도 동무들과는 달리 전공부문과 수학, 화학 등 자연과학 분야는 물론 역사학과 문학을 비롯한 인문학까지 열심히 파고들었다. 그는 우수한 육상 및 탁구에호가였고 성악과 미술에도 조예가 있었다.

하여 연구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사색의 폭이 매우 넓었다.

주체95(2006)년에 수의학석사가 되었다.

그는 일반화능력, 추론하는 능력이 높았으며 여러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있었다.

그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로부러 풍산개박사로 불리우고있는것이 그것을 증명하고있다.

그는 2000년대초에 풍산개와 관련한 자료들을 보다가 조선민족 모두가 사랑하는 이 품종에 대한 역사적고찰 및 생물학적연구가 아직 완성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자신이 이것을 말아하리라 마음다졌다.

당시 개를 단순히 동물이나 집짐승의 종류로가 아니라 민족의 발전 역사와 연관시켜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

옥진영이 착실하게 축적했던 생물학과 역사학, 고고학분야 등과 관련한 지식이 없었다면 그 연구의 결말은 지금처럼 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기에 그가 주체101(2012)년에 풍산개의 품종화력사와 생물학적

## 국전과 함께



풍산개의 순종보존과 증식을 위해



해마다 진행되는 풍산개품평회 심사에 참가한다.



풍산개의 원산지를 찾아서

특성에 대한 생물학박사론문을 발표했을 때 사람들은 그의 정열과 함께 다재박식한 재능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2년후 풍산개는 국전으로 선정되었다.

그후 주체106(2017)년에 옥진영이 조선의 애견문화와 풍산개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논문을 발표하고 역사학석사가 되자 그를 잘 아는 동료들속에서는 이제 5년후에는 옥진영이 장편소설을 써내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말이 나돌았다고 한다.

사진 리명일 글 최광호

## 남포시 룡강군에서 발굴된 고구려벽화무덤

최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남포시민족유산보존사의 연구집단이 남포시 룡강군에서 고구려벽화무덤을 새로 발굴하였다.

무덤은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룡강큰무덤과 쌍기둥 무덤으로부터 동쪽으로 1.5km정도 떨어진 은덕지구의 산중턱에 위치하고있다.

무덤은 안길과 안칸으로 이루어진 외칸돌칸흙무덤이다.

안길입구에 있는 화장석판돌로 만든 돌문에는 쇠로 만든 고리형손잡이가 붙어있다. 현재 남아있는 돌문의 높이는 125cm, 너비는 60cm, 두께는 9cm이며 손잡이의 직경은 10cm이다.

평면정방형을 이루고있는 안칸의 한변의 길이는 3.17m, 높이는 1.5m정도이다.

안칸에 그려진 벽화의 기본주제는 사신도이다.

발굴과정에 범, 개와 같은 짐승이나 넝쿨무늬를 형상한 벽화조각들이 나왔다. 이외에 관대우에서 판못 1개가 발견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고학학회에서는 이 무덤이 룡강일대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사신도주제의 고구려벽화 무덤이며 그 축조시기는 6세기경이라고 확증하였다.

또한 고구려벽화무덤들가운데서 쇠로 만든 손잡이가 달린 대문형식의 돌문이 그대로 남아있는 무덤이 흔치 않은것만큼 학술적의의가 크다고 평가하였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글 박병훈



백호를 형상한 벽화



무덤전경



무덤에서 발굴된 벽화조각들



